**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네이버 플러스 (초교파적 미션 허브의 다양한 선교적 플랫폼)**

**개요**

나의Action은 가족, 친구, 이웃의 삶에 가치를 더하고 축복하는 힘이다. 이웃을 섬기는 겸손과 친절로 애써 예수를 따라감으로 나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지경을 넘어 새 땅에 이른다. 내 작은 섬김의 본은 이웃에게 이르도록 주가 베푸시는 선한 영향력이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디에선가 들어 봄직한 소리일 것 같다.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와 주변의 삶을 축복하는 힘이 된다면 머뭇거리고 있어서도 안될 것 같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필요에 따른 나눔과 채움이 일어난다.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필요 보다 우선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영적 전장이다. 네이버플러스는 1999년에 설립되어 그 전장의 현장으로 보내진 후, 이젠 23살 건강한 청년이 되어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셔널 라이프를 살고 있다.

**러빙밀**

네이버플러스는 팬데믹으로 앞이 보이질 않는 어두움과 단절의 시기에 먼저 나설 수 있었다. 2년 여, 위험할 수도 있는 현장을 오가며 나누고, 채우며 “우리가 나선 것이 이웃 뿐만 아니라 우리 에게도 축복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준비한 작은 **러빙밀**을 기다리는 홈리스 분들의 긴 행렬 속에서 서로 “God bless you. Dios Te Bendiga” 축복하며 모처럼 활짝 웃는다. 그들의 눈을 통해 스며드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순간들이다.

작은 사랑의 밀이 만들어져, 지치고 곤한 손에 놓이기 까지 얼마나 많은 손을 거치게 되는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5여명의 청소년들과 10여명의 어른들이 매주 거름없이 이틀에

거쳐 이 곳 저 곳에서 사고, 나르고, 넣고, 만들고, 패킹하여 기도와 찬양과 함께 사랑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여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지만, 그 동안 4만번 이상 반복되었다.

연인원 3,500명의 봉사자들을 통해 러빙밀 4만개가 전해졌다. 모든 봉사자들의 영적 성장의 열매도 보게 되었다. 코비드가 심해 한주 넘기려면 봉사자들의 안타까운 외침이 먼저 들린다.

매주 400개의 러빙밀이 뉴욕 뉴저지 10여개 타운의 홈리스분들께 오늘도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봉사자들의 든든히 선 믿음과 행동하는 용기 때문일 것이다.

틴에이져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자신이 맡은 작은 일을 감당하고있다. 하지만 매주 결코 작지 않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적지 않지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인내와 사랑의 띠로 묶인다.

**히스패닉 홈리스 – 생명살리기 운동**

네이버플러스는 **히스패닉 젊은 홈리스**들을 월 1-2회 식사와 예배로 섬기고 있다. 또한 뉴욕 일원의 여러 쉘터와 연합하여 그들의 필요 중 일부를 지원하고, 그들의 현실적 필요를 접촉점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오피스에서는 그들의 손과 발과 귀가 되어 각종 사회, 커뮤니티 서비스 로도 돕고 있다. 주변을 꺼리는 신분미비자, 홈리스 히스패닉들 50 – 100명과 함께 1년에 1-2차례 갖는 Retreat은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눈물과 은혜의 장소가 된다. 영으로 보여주시는 생명과 능력의 현장은 작은 밀과 함께 전해진 복음의 따뜻한 손길에서 시작되었다.

**호스피스, 레스피트**

네이버플러스는 **호스피스,레스피트** 등으로 말기암, 치매 등 중증 환자들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이 있다. 돌봄 봉사자들은 그런 사랑을 먼저 체험한 가족들이 대부분이다. 공식 라이선스를 준비하고 그 정신을 수행하기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든다. 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은 가족과 친지 등 주변에 애써 나누고 전하다가 부르심을 받고있다. 유가족과 친지들을 통해 사랑과 정신이 이어져 가고있다. 이젠 환자들이 찾고 병원들도 찾는 선한 이웃이 되어가고 있다. 아픈 곳, 어려운 곳, 소통이 없어 막막한 곳, 그 어느 곳이든 찾아 생명을 나누고 있다.

**독거노인**

네이버플러스는 뉴욕 뉴저지 일원의 신분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있다. 드러나길 꺼리는 분들, 곤한 영혼에 삶을 체념한 독거노인들은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25명 (내년엔 35~40명 예상)의 독거노인분들께 매달 일정 금액의 식료품을 지원하고, 책읽기, 산책, 전화 문안드리기, 대화하기, 가고 싶은곳 동행해 드리기 등 청소년들과 많은 성인 봉사자들이 함께 한다. 귀한 시간을 나누며 생명을 기뻐하는 시간들이다.

**싱글맘**

네이버플러스는 **홀로된 엄마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위로하고 있다.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힐링과 격려로 돕고 있다. 현실적인 생활고와 자녀 양육, 갈등 등을 듣고 품고 보듬어 살핀다. 3명의 봉사자가 20여 가정의 한 분 한 분과 매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삶을 나누고 있다.

**핸디맨**

네이버플러스의 **핸디맨팀**은 어려운 이웃, 싱글맘, 독거노인,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 청소년 가정 등 소외된 곳을 찾아 크고 작은 집안 일들을 돕는 손길이 되어 드린다.

**맘스미션**

네이버플러스의 **맘스미션**은 10여년전 시작된 엄마들의 모임으로 10여명의 봉사자들이 별도 공간을 이용하여 각종 갇혀있던 물품들을 나누고, 정기 바자회,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한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 해외 선교지, 싱글맘 등에게 사랑을 더하여 남김없이 전해 드리고 있다.

**청소년,대학생, 청년 사역**

네이버플러스는 **청소년-대학생-젊은 직장인**들에게 미셔널라이프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세상의 일반적인 컨설팅과는 달리 행동하는 젊은 크리스찬들 간 성장의 과정 속에 필요한 실질적인 코칭과 맨토링의 기회를 열어준다. 자원봉사를 위해 들른 곳에서 비롯되는 크리스찬의 미셔널 라이프를 경험하고 듣고 전하며 나눈다. 전인격적 크리스찬을 지향하며, 단계별 3명의 목회자 리더쉽이 함께 하고 있다.

**소셜서비스, 커뮤니티서비스, 의료프로그램 서비스**

네이버플러스는 각종 **소셜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의료프로그램 서비스** 를10여명의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중엔 특별 상담 등 각종 누릴 수 있는 지원을 찾아 드렸다. 지식, 정보, 언어, 소통, 서식, 행정, 하우징, 은퇴, 일자리 프로그램 등 커뮤니티의 필요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오리 > 십리, 겉옷 > 속옷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로 사는 길을 따르고 있다.

**젊은이들의 취업준비 전문 IT 클래스 및 취업알선**

네이버플러스는 현직 전문직 종사자분들과 전문경영인 등과의 커넥션을 통해 젊은이들을 위한 **취업준비 IT 클래스**를 개설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전역에 클래스가 연중 시행되고 있으며, 장기 미취업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다.

**청소년, 대학생들의 썸머 인턴쉽**

네이버플러스는 Summer Break 기간에 청소년, 대학생들이 미셔널 라이프의 현장을 체험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턴쉽** (미디어, 디자인, 통역, 어려운 가정 Tutoring 등) 의 기회를 제공하며, 코칭과 멘토링의 넷웍에의 자발적 참여를 돕는다

**현장 예시 (러빙밀)**

* 코비드를 통해 더욱 빨리 다가온 콘텐츠
* 처음엔 선한 마음으로 코비드 시기에 제일 힘든 분들인 홈리스 분들에 대한 긍휼로 자비량 으로 샌드위치 만드는 분들이 있었고, 이것을 홈리스들에게 전할 사람이 필요했다
* 네이버플러스는 딜리버리만을 담당했다.
* 하지만, 소수가 만드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사역 기간이 중단될 위기에 이르렀다 (당시엔 3개월만 시행하려 했었다)
* 네이버플러스는 경험도 준비된 자금과 인력도 없었지만 시작하게 되었다 . 그러니 적은 갯수를 만들어도 힘이 들고 비용도 적지 않았다
*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길지 않은 시간에 각자 한가지씩의 일을 하고 있다
* 소문이 나면서 재정지원 및 물품지원 등 러빙밀에 대한 목적 후원도 늘었다
* 러빙밀은 금요일( 1시간)과 토요일 (2시간)로 나누어 준비되고 만들어진다
* 비용12-15불 상당 러빙밀이 실비 1.25-1.50불에 만들어져 전달되고 있다

러빙밀과 함께 의류, 침구류, 신발 등 다양한 후원물품과 겨울엔 뜨거운 커피, 여름엔 아이스 커피가, 어느 곳이든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전달된다 (보통 3-4시간)

* 홈리스분들이 모이는 현장, 특히 뉴욕(150개)은 턱없이 부족하다
* 하지만 공간 떄문에 네이버플러스에서는400개 이상 만드는 것은 무리다
* 그래서 콘텐츠를 전해드리고 과정별 시행 노하우로 지원해 드리겠다고 하며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찾았지만 함께 지역을 섬길 교회나 단체가 없었다
*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콘텐츠를 찾는 의지나 도전을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러빙밀은 많은 청소년과 성인 등 참여와 소통의 플랫폼을 이룰 수 있었다

* 이를 통해 다른 사역 지원과 새로운 사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합과 협력, 사역의 연결이 되어 독거노인, 싱글맘, 히스패닉 홈리스 등이 활성화 되고, 젊은이들을 위한 청소년 사역이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에게 까지 확장되고 있다